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 열왕기상 19장 15-21절
(Tag:엘리야,엘리사,영적질서,영적아버지,구약성경,열왕기상)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기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왕상19:15-21)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선지자. (둘은 쌍.)

엘리야는 예언과 기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마치 실제 전쟁을 치루듯이 한 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린 자.

-그는 마침내 불 기둥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다. 끝까지 스펙타클하다. (엘리사도 못지 않지만, 엘리야만큼 스펙타클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유명한 엘리야에게 고난의 시기가 왔다. 그는 탈진한 상태에서 호렙산에 이른다. (조울증)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의 주관자이지만, 말씀을 세밀하게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명 하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접하고 즉시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중심 초점은 항상 사명감당이어야 한다.

모든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력하다. 명품은 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차이가 모여 명품이 된다.

함께 하면, 그런 의미에서 유리하다.

함께 할 때 동등해야 하는 것은, 그 인격과 가치와 상급에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나은지, 더 높은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헤게모니 쟁탈전은 경쟁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다. 그것은 비열한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헤게모니를 쥘 것인가? 먼저 된 사람이다. 먼저 죽게 될 사람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

더 유능하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일꾼이고, 돕는 자이다.

나는 헤게모니에 힘을 쏟지 않는다. 헤게모니를 쥐어야 만 더 만족스럽거나, 더 좋거나, 더 유리하거나, 더 편하지 않다.

오히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를 돕거나, 보살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많은 사람이 부목사를 하려면 힘들거라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충성의 기쁨과, 최선을 다한 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에게 큰 복을 받을만한 성적표가 있는게 아니다. 성적은 별론데 상을 크게 받았다. 물론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뜻이다.

물론 상을 받을 것을 소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겸손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결코 혼자 있을 때에라도 겸손하려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기름부음을 갈망했다. 왜냐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은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다.

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받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겺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겺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

엘리야는 특이한 옷을 입었다. 곧 털이 있는 약대 가죽옷이다. 또 옷은 신분이며, 사명이며, 직업이며, 기름부음이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겺옷을 던졌다는 것은 곧 엘리야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르는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꿈과 계시로 미리 말씀 하셨을 것이다. 엘리사 또한 이 사역의 감당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며 때가 오기를 인내하였을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받을 갈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즉시 순종하여 따

왔다.(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간다는 말은 작별인사를 뜻한다. 이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잘 계시라는 뜻이다.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뜻은 자신의 직업을 버린다는 것으로 소명에 대한 결단이 확고하다는 예언적 행동이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눅9:59-60)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20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

이 말은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는 뜻이다.

21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동안 얼마나 엘리야가 백성들을 섬겨왔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다; 엘리야의 영성을 사모하며 가장 측근에서 그를 보살폈다는 의미.

-나는 한나라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경 해석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나 역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이 규정한 것을 서로 지키고, 또 나는 한나라교회 목사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논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것이며 협력하러 가는 것이며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 신명기 6장1-13절 주제: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6:1-13)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

-그러므로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